

## 홍콩 개최 “인터 스토프 아시아 에센셜 2011 봄”

### 전시회 리포트 <3/3>

한국의 섬유산업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중국에 뒤지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일본에 뒤지고 있는 “샌드위치 상태(sandwich 狀態)”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광택이 있는 “금박(金箔)이나 은박(銀箔) 프린트 가공”을 한 폴리에스터 후지 직물이나 금속사를 삽입한 폴리에스터 박지 직물 등의 팬시(fancy) 직물 등의 제안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국 및 북한의 직물 생지는 H&M(Hennes & Mauritz), 자라(ZARA) 등의 패스트 패션 (fast fashion : 최신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 , 비교적 저렴한 가격 , 빠른 상품 회전율로 승부하는 패션) 어페럴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다.

이들 아이템이 인기를 끄는 비결은 제품의 제안력과 가격 경쟁력에 있다. 2~3주 걸러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패턴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제품은 대개 1yd에 3~5달러 수준이며, 중국과 비교해서 싸지는 않으나, 구미(歐美)의 패스트 패션 어페럴에게는 “가격과 품질면에서 잘 어울리는 생지”로써 호평받고 있다.

중국세(中國勢)는 대규모 공장에서의 일괄생산 강점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중국의 “항력집단(恒力集團)”이라고 하는 회사는 PET 원료인 TPA(Terephthalic Acid)로부터 실, 생지까지 생산하는 대규모 폴리에스터 생산기업이다. 제직 부문은 워터젯(water jet)직기 8,000대에 에어젯(air jet)직기 5,000대를 가동시키고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직포공장과 TPA 원료에서 부터 직포까지 일괄생산을 배경으로 폴리에스터 생지 1m에 50센트(cent)~4달러의 가격으로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이나 대만에서 온 사람이 늘었다. 값이 크게 올라 있는 면을 대신할 폴리에스터 직물의 문의도 적극적이라고 한다. 인도의 출품기업이 6개사로 많아진 것도 특징적이다. 출품이나 관람에서 모두 “중국 플러

스 원(China plus one)”의 후보로 짐작되는 나라들이 매년 착실하게 존재를 굳히고 있다.

